

NEWS LETTER

2020년 8월 3일 Vol. 380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컨소시엄 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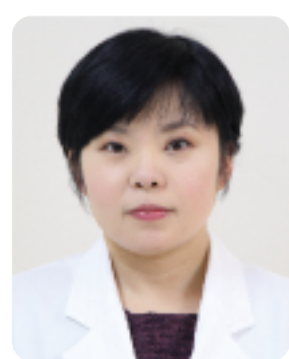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공모에서 컨소시엄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의 자체 연구역량 및 데이터 활용기반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춘 의료데이터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해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신약·의료기기·인공지능(AI) 등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및 진단, 치료법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발전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교수, 대한내과학회(KJIM) 상반기 우수 논문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교신저자, 1저자: 경희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맹치훈 교수)가 작성한 논문이 대한내과학회 영문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KJIM) 2020년 상반기 우수논문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 주제는 ‘국내 암환자 다학제 진료 형태와 환자 만족도’로 KJIM 35권 1호에 게재됐다.

연구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다학제 진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로, 유방암(23.8%)과 대장 직장암(19.1%)이 다학제 진료 빈도가 높고 다학제 진료에 참여한 의사 수는 대부분 5명(70%)임을 밝혔다. 또한 다학제 진료 후 17.4%의 환자들에게서 치료 결정이 변경되었고, 진료 만족도는 9.6점(10점 만점)으로 다학제 진료의 만족도는 높았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로 다학제 진료의 국내 현황이 파악되어 향후 암환자 다학제 진료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2016년도 대한종양내과 학회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학술연구비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입원환자들의 안전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 경과 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시술,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3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71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들의 진료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복지부에서 입원환자의 안전 강화와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 시간 이내로 제한한 데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첫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해원 병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을 통해 입원환자 관리의 안전과 효율성, 진료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와 내원객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 확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와 내원객들의 병원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푸드코트 등과 같은 편의시설 공간을 확장했다.

현재 병원 내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와 ‘파리바게트’가 입점 된 가운데 지하 1층에 자리하던 편의점을 1층 중앙 로비에 마련해 환자 및 이용객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곳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프리미엄급 국내 23번째 매장으로 ‘무인시스템’을 비롯해 ‘인공지능결제로봇’을 통한 셀프 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10월 초 지하 1층에 대형 푸드코트 ‘식객’ 입점이 예정돼 있어 내원객들의 병원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총무팀장은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과 같은 공간 개선을 통해 앞으로 내원객 및 환자의 이용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